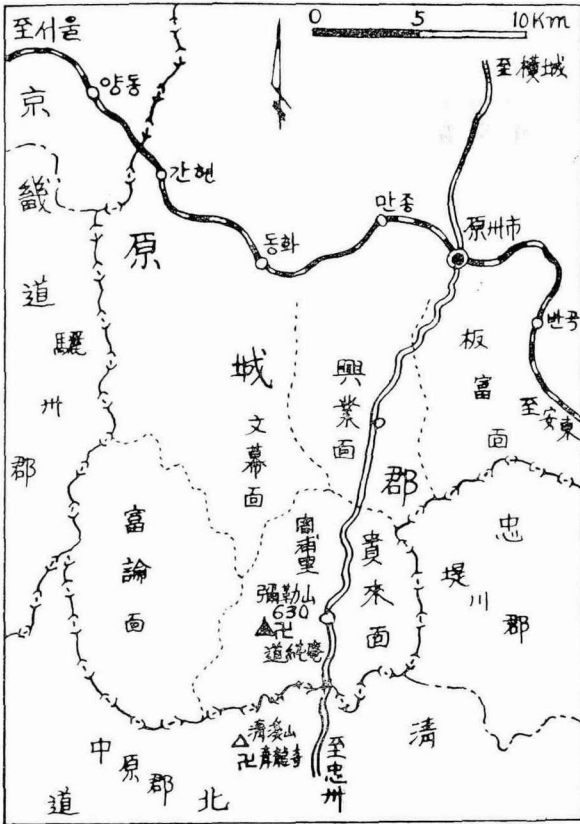


原城周浦里 道純庵의 遺蹟

鄭 永 鎬

江原道 原城郡 貴來面 周浦里 新竺洞에 現在 道純庵이란 작은 庵子가 造營되어 있다. 이곳은 貴來面所在地에서 西北쪽으로 五六浬는 彌勒山 東峯上腹인데 筆者는 一九六七年九月八日 檀國大學校博物館 月例踏査次 史學科生 十一名을 引솔하여 現地의 諸遺蹟을 調査한바 있다.

現住持인 金鳳道(六十歲)菩薩의 말에 依하면 이 庵子는 近來에 建立된 것이라든 洞民들의 傳言으로 最近에 이곳에 온 自己로서는 寺刹에



彌勒山 道純庵 位直圖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바가 없다고 한다.

草家一棟을 建築하여 近年新造의 坐佛一軀를 奉安하고 있는 이 小庵은 거의 彌勒山(海拔六三〇m) 頂上部에 位置한 까닭으로 그 行路가 險해서인지 信徒가 別로 없다고 하며 近方에도 庵子의 存在조차 잘알려지지 않은것 같다.

現庵子가 세워진 곳은 물론 古式의 石築위로써 過去부터의 建物址임을 곧 알수 있는데 이곳에서 東北쪽으로 約三十m되는 약간 높은 場所에 上·下二段의 石築(高一·五m長二十·三十m)이 있고 그위에 넓직한 臺地가 마련되어 있어 注目된다. 上·下段 모두 耕作地로 變해졌으나 몇개의 自然石 柱礎는 아직 남아 있고 瓦片이 散亂한 것으로 보아 建物址로 推定되는 바인데 現道純庵의 位置보다는 이곳이 더 넓고 石築도 整然한 點으로 보아 本來의 中心은 이 자리였던 것 같다.

周圍 地勢나 石築이 南北方向으로 쌓인 點으로 보아 東向寺刹이었을 것이며 規模는 큰편이 못되나 山寺로서는 짜임새 있는 아늑한 곳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現在 이곳에는 양쪽 石築臺를 中心하여 數種의 石造物部材가 散在하며 또 彌勒山 頂上에는 磨崖佛像이 있어 筆者一行이 모두 調査하였다.

한편 이곳의 遺蹟에 對한 記錄으로는 山頂의 磨崖佛과 寺刹에 關하여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五三二頁二十一項에……「貴來面 周浦里 新竺洞 寺址와 石佛——黃山寺라 稱하는바 彌勒山의 東面山腹에 있으며 石坦이 殘存하고 瓦片이 散在한다. 石佛은 彌勒像으로서 彌勒山 絶頂에 屹立하는 一大岩壁에 彫刻한것이다.」라 紹介되었을 뿐이다.

여기서 寺刹라 함은 前記 石築을 中心한 建物址를 말하는 것이고 또 石佛이라 한것은 곧 磨崖佛을 일컫는 것인데 古山名을 彌勒山이라하는 것도 이 佛像을 彌勒이라 稱하고 供養해 온데에 由來된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現存 諸遺物을 個別的으로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一 三層石塔

現在 倒壞되어서 道純庵 東北쪽 石築 밑에 各部材가 散亂하며 그 中 屋身一石은 溪谷에 까지 굴러 떨어져 있는데 筆者가 調査한 것은 屋身三石과 屋蓋二石、基壇甲石一枚、長方形臺石二枚로서 이들을 綜合해 보면 다음과 같은 構造의 石塔임을 알 수 있다.

二枚石은 結構한 높이 二八 cm의 方形地臺石(一邊長一一七 cm로 추측함) 위에 一石으로 된 基壇石(高六六 cm 一邊長一一二 cm)을 놓고 그 위에 一枚石으로 造成한 甲石을 놓았는데 副椽은 없고 上面은 傾斜가 있어 四隅의 合角이 뚜렷하며 頂面 中央에는 一邊長八十 cm의 方形받침臺가 마련되었다.

初層屋身은 兩隅柱가 整然히 刻出되었으며 上面中心에는 圓形으로 徑六·五 cm 深十一 cm의 舍利孔이 마련 되어 있다. 그 위의 初層屋蓋石은 받침이 三段이고 下段長은 六八 cm인데 落水面頂部에는 屋身받침 없이 그대로 二層屋身을 받고 있다. 一層도 初層과 같이 兩隅柱가 刻出되었 으며 二層 또한 그리하다.

二層屋蓋石은 當時에 發見하지 못하였으나 三層屋蓋石이 初層과 같이 받침 三段이고 屋身받침(三層에서는 露盤받침이 될 것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 二層도 같은 形態와 樣式을 갖춘 것으로 짐작된다.

初層도 그렇지만 三層屋蓋石도 倒置되고 上部가 埋沒되어서 頂面中央에 椽柱孔이 있을 것이나 調査하지 못하였 으며 그리고 露盤 以上の 相輪部材도 發見하지 못하였다.

이 石塔은 現存部材의 規模로 보아 三層보다 더 많은 層數는 아닐 것 이어서 三層石塔이라 表題하였는데 原位置는 上段石築위의 臺地中央쯤 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하여 廢寺와 아울러 倒壞된 各部材가 오랜 世 月에 沙土에 묻히고 굴러 떨어져 現在와 같이 散亂해졌 으며 完存치 않 는 것으로 여겨진다.

石塔은 兩隅柱와 椽柱가 없는 基壇에서 곧 時代가 降下되는 形式임을 알 수 있는데 各屋蓋石의 三段받침이나 落水面의 急傾斜인 點과 屋身받

침이 略化된 樣式手法等 各部의 構造로 보아 高麗式을 갖춘 石塔으로서 造成年代는 그 中葉으로 推定된다고 하겠다.

現在의 기층어진 寺連이 회복 되고 새롭게 佛寺를 일으키는 날에 이 들 石塔의 各部材를 收拾해 보면 缺失된 部材가 發見될 것이며 아울러 全高約三 m 石塔의 完全한 復原이 可能할 것으로 믿는다.

各部材의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單位 cm) 但 埋沒된 部分은 實測할 수 없어서 여기에 全部를 밝히지 못함은 유감된 일이라 하겠다.

地臺石 一石 一七×七七 高二八 基壇石 一石 一二×七七 高六六 基壇 甲石 一邊長一四三 厚一八 塔身받침 一邊長八〇 初層屋身高六〇·五 幅六〇·五 隅柱幅二二 初層屋蓋石받침長九一·八〇·六八 轉角厚二二·二 層屋身高二八 幅四六 隅柱幅一〇·二 三層屋身高二四 幅三八 隅柱幅一〇 三層屋蓋石추너 一邊長七三 轉角厚九 屋蓋받침長六二·五三·四三·五

二 石燈材

石燈도 完全히 倒壞되어 그 部材가 거의 다 缺失 되었 으며 現在 下臺石과 竿柱만이 境內에 放置되어 있다.

下臺石은 圓形으로서 一石으로 造成되었는데 側面下端에는 圓形의 突帶가 돌려졌 으며 側面에는 複葉 八瓣의 伏蓮이 彫刻되었다. 그리고 頂面에는 八角으로 낮은 받침이 刻出되고 다시 높직한 一段의 八角받침臺를 마련하여 竿柱를 받게 하였 으며 그 中央에는 徑十七·五 cm 深十 cm의 圓孔을 施孔하여 竿石 下端部突起를 끼우도록 하였다.

竿石은 現在 二片으로 切斷되었는데 八角으로서 各面에는 隅柱等 別 다른 彫刻이 없다.

八角圓堂型의 石燈은 新羅時代부터 基本形式으로 이루어졌던 樣式으로서 以後 高麗時代에 까지 繼承되었었다. 그러나 이곳의 石燈은 下臺石의 蓮瓣樣式이나 各面의 治石手法으로 보아 高麗時代의 造成으로 推定되며 따라서 前述한 三層 石塔과 同代의 所作이 아닌가 한다.

各部의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單位 cm)

下臺石 徑六六 全厚三〇·五 竿石 받침高三·五 竿石 받침外徑三六 內徑

二六 竿石一邊長一一 竿石片其一 長五九 竿石片其二 長四〇

三 西應堂浮屠와 台石一座

道純庵에서 約二百 m 되는 아래쪽에 浮屠一基와 그 옆에 台石一座가 遺存한다. 그러므로 貴來面所在地 方向에서 올라가면 庵子 못미처서 이 兩遺物을 보고 가게 된다.

浮屠는 花崗岩 一石으로 造成한 것인데 그 表面에 字徑十一 cm의 楷書體로 「西應堂」이라 刻字하였으므로 곧 主人公을 알 수 있다.

平平하게 治石한 台石上面 中央에 圓形의 받침一段을 彫出하여 浮屠를 받고 있는데 台石이 거의 다 埋沒되어서 그 形態나 側面의 彫飾 有無를 알 수 없다.

浮屠의 形式은 朝鮮時代 後期の 典型的樣式인 石鐘型으로서 上下端部가 좁아지고 中間腹部가 볼록한데 이 西應堂浮屠는 他例에 比하면 細長한 편이다.

頂面에는 中心部에 寶珠가 彫刻되었는데 別다른 裝飾은 없었다.

浮屠各部의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單位 cm)

全高九九·五 下徑四二 腹部徑六一 上徑三〇 寶珠高一二·五 寶珠下部徑二四

浮屠 바로 옆에 殘存하는 台石은 一石으로 造成된 八角形 台石인데 各側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다. 上面은 平平하게 治石하였으나 若干의 傾斜가 보이며 合角도 약간 表示되었다. 中央部에는 一段의 넓직한 圓形 받침臺를 마련하고 그 中心에 徑十三·五 cm 深九 cm의 圓孔을 施孔하였는데 이것은 곧 舍利孔으로 추측되며 이 위에 놓였던 塔身은 現在 溪谷에 굴러떨어졌는지 殘存치 않아 그 正確한 形態를 알 수 없으나 대개 石鐘型으로 推定된다.

朝鮮時代의 石鐘型浮屠에 있어서는 台石 上面中央에 舍利孔(대개는 圓孔인)을 마련하여 그곳에 舍利를 奉安하고 塔身을 놓는 것이 通式인데 前記 이곳의 台石도 이러한 通例의 台石으로서 그 위 塔身만을 缺한 것이라 생각된다. 現在 그 內容物이 없으므로 어떠한 裝置를 하였었는지

알 수 없으나 台石의 各部樣式이 朝鮮時代 後期の 石鐘型浮屠와 같은 點으로 보아 이 遺物도 同時代의 造成으로 推定해도 無理는 아닐 것이다.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單位 cm)

台石全厚四一 一邊長二八·三二 側面高二八 台石徑七六 塔身받침臺高三 받침臺外徑四七 받침臺幅十七

四 塵崖如來坐像

道純庵 뒷쪽 主峰이 곧 彌勒山 上峰으로서 俗稱 彌割바위(岩)라고 하는 巨大한 花崗岩 東壁에 塵崖佛 一軀를 陽刻하였다. 그러므로 佛像도 東向하였으며 바로 眼下에 庵子가 보이는데 實際 道純庵에서 이곳 佛像에까지 올라 가려면 거리는 불과 山路로 五百 m쯤밖에 안되지만 急傾斜인데다 險峻하여 二十分程度의 時間이 所要된다.

佛像은 上峰周圍에 屹立한 諸巨岩 가운데 가장 높고 큰 岩壁에 造成되었는바 華奢한 蓮華座上에 結跏趺座한 如來像이다.

蓮華座는 仰蓮으로서 頂上이 重疊된 蓮形으로 이루어졌는데 中心部는 磨損으로 彫刻이 稀微하고 左右 兩端部만이 뚜렷하다.

素髮의 頭頂에는 낮은 肉髻가 있고 相好各部는 벨리이프가 強하여 鼻樑이 오뎅하다. 兩眼은 正視하고 있으며 兩耳가 길고 목에는 三道가 돌러져서 위엄이 있어 보인다.

法衣는 通肩하였는데 右肩部의 岩壁에 龜裂이 있고 部分的으로 破損되었으며 더욱이 胴體全面에 두꺼운 靑苔가 끼고 또 磨滅이 甚한데도 있어 兩手印과 各部 彫刻 및 衣文等이 鮮明치 않아 正確한 形態를 알 수 없었다.

岩壁周圍이 絶壁뿐이어서 全高만을 約十 m일 것으로 推算하고 各部의 實測은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坐像의 方向은 正東에서 北으로 五度쯤 向한것임을 測定하였는데 이 佛像의 各細部 實測과 調査는 全面的 靑苔를 除去하는 作業을 비롯한 別途의 裝備와 器具를 갖추는 일을 兼行하여야 될 것이다. 이 佛像의 造成年代는 佛像이 巨軀이며 各部의 彫刻이 세련되지 않은 手法에서 高麗時代 初半인 十一世紀頃으로 推定된다.